

현안과 과제

■ 트럼프발 철강전쟁의 의미와 시사점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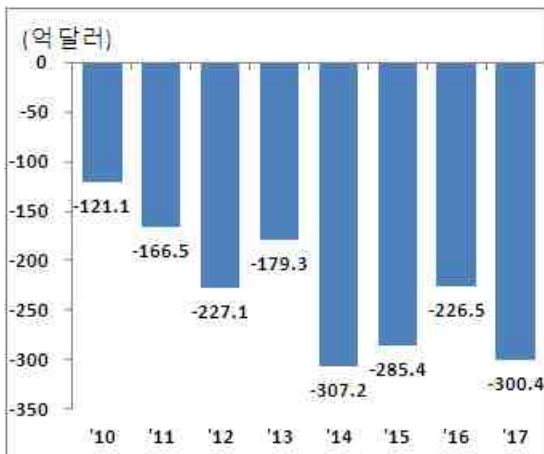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에 타격이 예상

-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2018년 2월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3가지의 철강 수입규제방안을 제시했음
 - 3월 8일(미국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제시한 수입규제방안을 다소 수정하여 수입 국가에 대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단,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

- 한국을 비롯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의 철강산업에 타격이 예상
 - 2017년 미국은 철강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300억 달러를 초과함
 -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25%의 철강 관세가 부과되면서 해당국가의 철강 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가 한국의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철강 무역수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HS코드 72, 73을 기준으로 함.

< 대미 철강수출 상위 10개국 >



자료 : 미국 상무부.
주 : 물량 기준.

2. 미국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 경제 파급 영향

○ 한국의 대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 현황

-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철강은 약 5.9%, 알루미늄은 0.3%의 비중을 차지
 - 한국의 2017년 대미수출은 약 686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3.2% 증가
 - 한국의 대미수출 중 철강 수출은 약 40억 달러로 전년대비 14.9% 증가했으며, 전체 대미수출 중 약 5.9%의 비중을 차지
 - 한국의 대미수출 중 알루미늄 수출은 약 2억 달러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으며, 전체 대미수출 중 약 0.3%의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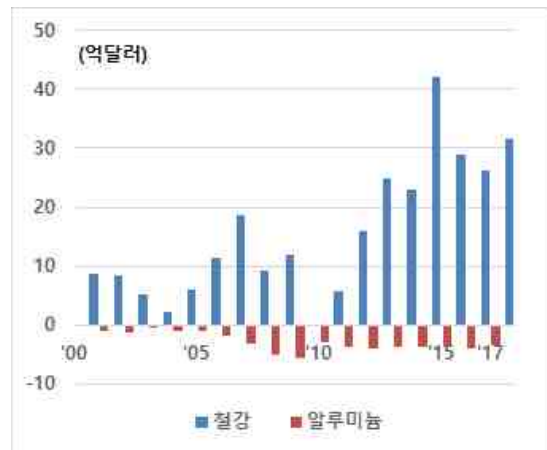
-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철강은 흑자, 알루미늄은 적자를 기록
 - 철강의 대미 무역수지는 2009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한국이 흑자를 기록
 - 한국의 대미 철강 무역수지는 2014년 42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32억 달러로 증가
 - 반면, 알루미늄은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한국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품목

<한국의 품목별 대미 수출 비중('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철강 HS72, 73, 알루미늄 HS76 기준.

<철강 및 알루미늄의 대미무역수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철강 HS72, 73, 알루미늄 HS76 기준.

○ 미국의 대한국 관세 부과 및 수입제재 현황

- 현재 한국과 미국은 철강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로 교역¹⁾
 - 철강의 경우 WTO의 철강 무관세 협정 원칙이 적용되어 한국과 미국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무관세로 교역
 - 알루미늄의 경우 관세가 있으나 관세율이 1~2%에 그침
- 그러나 미국은 반덤핑, 상계관세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이용해 한국산 철강 수입을 제재
 - 미국의 대한국 수입제재 중 반덤핑의 경우, 현재 23개 품목이 규제중이고 7개 품목은 조사중에 있음
 - 그런데 전체 반덤핑 규제 품목 23개 중 17개 품목이 철강에 해당하며, 현재 조사중인 7개 품목 중에서도 3개가 철강
 - 상계관세의 경우, 현재 총 7개 품목이 규제중인데 이 중 6개 품목이 철강
 - 조사중인 상계관세 품목 1개 역시 철강에 해당
 - 미국의 대한국 수입제재 중 세이프가드의 경우, 현재 규제 및 조사중인 2개 품목에서 철강은 제외

< 미국의 대한국 수입제재 현황 (반덤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미국의 대한국 수입제재 현황 (상계관세) >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2017년 HS code 6단위 기준(자료: WTO).

○ 미국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 경제 파급 영향

- 추정 방법

- 미국의 관세율 인상은 한국의 수출단가를 높이는 효과와 같으며, 이때 미국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한국의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단가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
- 2000년~2016년 미국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철강(HS72) 및 철강제품(HS73) 품목별 한국의 대미수출단가 및 물량(HS코드 6단위 기준)²⁾, 연도별 더미 등을 이용한 동태적 패널회귀분석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system GMM)을 통해 한국의 대미국 철강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물량의 감소 영향을 추정³⁾⁴⁾
-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단가 인상에 따른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감소에 대한 추정 계수를 토대로 향후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예상되는 피해액 추정

- 추정 결과, 미국이 모든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손실액은 연간 약 8.8억 달러로 추정

- 모형 분석 결과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단가 1% 인상 시 대미 철강 수출은 1.42% 감소
- 이를 통해 미국이 지정한 철강 품목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은 연간 약 8.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⁵⁾
- 이 경우, 연간 대미 철강 수출액은 2017년 현재 약 40.2억 달러에서 31.4억 달러로 약 21.9% 감소할 전망
- 전체 대미 수출은 2017년 현재 약 686억 달러에서 677억 달러로 약 1.3% 감소할 전망

2) 미국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세 부과 품목은 HS6단위 기준 720610~721650, 721699~730110, 730210, 730240~730290, 730410~730690에 해당. 이는 미국의 대한국 철강 수입의 약 65%.

3) 알루미늄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2017년 기준 0.3%) 분석에서 제외.

4) 한미FTA 변수를 모형에 반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철강은 2004년부터 WTO의 철강 무관세 협정 원칙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 발효의 영향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변수로 고려하지 않음.

5) 물론, 모든 수입 철강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에는 변화가 없어 대미수출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미국 2016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철강 수요 중 수입재 비중이 약 15%로 미국산 제품과의 경쟁도 고려해야 하고, 만약 25%의 관세 부과시 수입재가 미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

- 전체 철강 수출은 2017년 현재 약 354억 달러에서 345억 달러로 약 2.5% 감소할 전망

< 미국 철강 관세 부과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단위: 백만달러)

	현재 (2017년 기준)	철강 관세 부과시	감소율
대미 철강 수출액	4,019	3,139	-21.9%
대미 수출액	68,610	67,730	-1.3%
철강 수출액	35,410	34,530	-2.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트럼프정부가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 대상 품목(HS6단위 기준)만을 기준으로 분석.

- 대미 철강 수출 손실에 따른 3년간의 국내 생산 손실분은 약 7조 2,300억 원,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1조 3,300억 원, 총 취업자 감소분은 약 1만 4,400명으로 추정

- 산출된 수출 손실액과 산업연관표를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6)
- 대미 철강 수출 손실에 따른 3년간의 국내 생산 손실분은 약 7조 2,300억 원,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1조 3,300억 원, 총 취업자 감소분은 약 1만 4,400명으로 추정7)

< 미국 철강 관세 부과가 국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18~'20) >

	국내 파급 영향
수출 손실액 추정치	26.4억 달러
국내 생산 손실액 추정치	7조 2,300억 원
국내 부가가치 손실액 추정치	1조 3,300억 원
국내 취업자 감소분 추정치	1만 4,400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3년 누계 기준.

6)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기 위해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손실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2017년 평균 환율을 적용.

7) 해당 관세 부과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중(2021년 1월 20일)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발생할 것으로 가정.

3. 시사점

첫째, 주요 철강 수출국과의 공조를 통해 철강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

-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게 될 주요 철강 수출국과의 법적, 외교적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최소화
 -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노력과 동시에 피해국간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함
 -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전쟁 확대,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주목하여 미국 내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함
- 또한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향후 한국이 추가적으로 국제 통상마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둘째, 미국 정부와 추가 협상, 한미 FTA 재협상 과정 등을 통해 관세 부과국에서 한국이 조기에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을 통해 철강업계 및 국내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정부 및 유관기관은 미국 및 국제기구에 대한 소통 및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여 이번 무역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미 수출 철강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로 철강 업체의 수출 피해가 지속될 경우 고용 등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철강업계 및 국내 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고려해야 함
- 다만, 이번 미국의 조치에서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제외 사례를 확인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미국 정부와의 협상, 한미FTA 재협상 과정 등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조기에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

셋째,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규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현재 논란이 되는 관세 뿐만 아니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수입규제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될 가능성
- 특히, 현재 미국이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에 있어 반덤핑, 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 인상과 더불어 비관세장벽을 추가적으로 높일 경우 수출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

넷째,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 국내 철강업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동 투자, 신시장 개척 등 기업간 협업을 확대하여 철강업계의 상생을 추구해야 함
-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철강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스마트팩토리 등 기술을 적용하여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원가 및 가격경쟁력을 강화
- 수출 다변화를 통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성을 배양해야 함
 - 특히 인도, ASEAN, 아프리카 등 인프라 개발 수요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에 대한 진출 및 수출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함 **HRI**

백 다 미 연구 위원 (2072-6239, dm100@hri.co.kr)

김 수 형 연구 원 (2072-6217, soohyung@hri.co.kr)